

임진왜란(임진전쟁)은 한국, 중국, 일본의 학계가 공유하는 역사로서 국제적 연구가 어느 분야보다 활성화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의미 있는 성과들이 발표되었으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들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자국사’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사료를 활용하는 단계의 연구가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료가 만들어진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위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곧 찾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이 고수하고 있는 어떤 ‘틀’ (중화주의, ‘왜란’으로서의 인식 등) 을 벗겨내고 사료를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문은 일본의 자칭과 조선의 인식 사이에 놓인 의도에 주목하여, 앞서 말한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 의미있는 연구로 생각됩니다.

- 3장. 조선이 平氏를 사용한 이유 부분은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견해로 생각합니다.

① 조선은 일본 국왕(막부 쇼군)의 성씨가 源氏이며 그들의 적대세력이 平氏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② 히데요시가 ‘국왕’을 시해하고 찬탈한 자라는 정보가 전해졌다. + 조선에게 히데요시 및 그 일당은 賊이었다. → ③ 일본의 자칭, 성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해졌음에도, 조선은 이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平氏를 고수했다.

문제는 ①단계에서 평씨를 “반역 세력”으로 보는 인식이 존재했고 후대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조선이 ③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가 있는지)입니다.

- 사료에 담긴 의도 및 표현 : 『해동제국기』에 평씨가 원씨에 저항하였고 토벌당한 집단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본문에서 표현하셨듯이 “평씨는 일본국왕의 세계에 포함되지 않고 축출되어야 하는 반역자 집단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이 듭니다.

: 『간양록』 등 자료에서는 평씨에 대해 반드시 “반역자 집단”이라는 규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각주60번의 사료에는 “平(氏)”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 각 장에서는 일본의 자칭에 포함된 의도, 명의 이해, 조선의 이해와 의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록』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계시지만, 『실록』 내에서도 다양한 출처를 가진 사료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규정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장에서는 일본군이 자칭한 문서에서 추출한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본문에서는 성씨, 성, 묘지 등, 한국인에게 생소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리말, 혹은 본문 앞부분에서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源氏를 하사받지 못하여 쇼군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실제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4페이지. 고니시 유키나가가 셋츠[攝津]이 아닌 이치히츠로 자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기일까요?

- 8페이지. “이러한 통사의 해석은 일본 고대 카바네에 대한 이해와 일치한다”는 중국출신의 홍통사의 이해가 정확했다는 것인지요?

- 히데요시가 왕위를 찬탈했다. 전왕을 시해했다는 설에는 오다 노부나가에 의한 쇼군 추방뿐 아니라 아케치 미쓰히데에 의한 오다 노부나가 살해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지요?

기타.

- 일본용어 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토요토미[豊臣], 豊臣

- 4페이지. 마지막 단락 둘째 줄. “그 장에서” → “그 서장에서”?

- 고가이, 시즈카타케노 시치본야리 등의 용어는 적절한 우리 표현으로 번역을 하시거나, 각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7페이지. “그러므로 일본 책봉 문제와 관해서는 만력제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은 약간 어색한 것 같습니다. 황제가 직접 행차하여 책봉하는 예는 없고 (적어도 당시로서는) ‘속국’의 국왕이 책봉을 받으러 가는 일도 없었기에, 이는 책봉사의 당연한 역할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당시 명측의 일본 성씨 인식은 『사대문궐』 『경략복국요편』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